

## **13-2. 교착 상태 해결 방법**

# 교착 상태 해결 방법

예방

회피

검출 후 회복

# 교착 상태 예방

교착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 
교착 상태 발생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자원을 분배하는 방법

# 교착 상태 예방 : 상호 배제 제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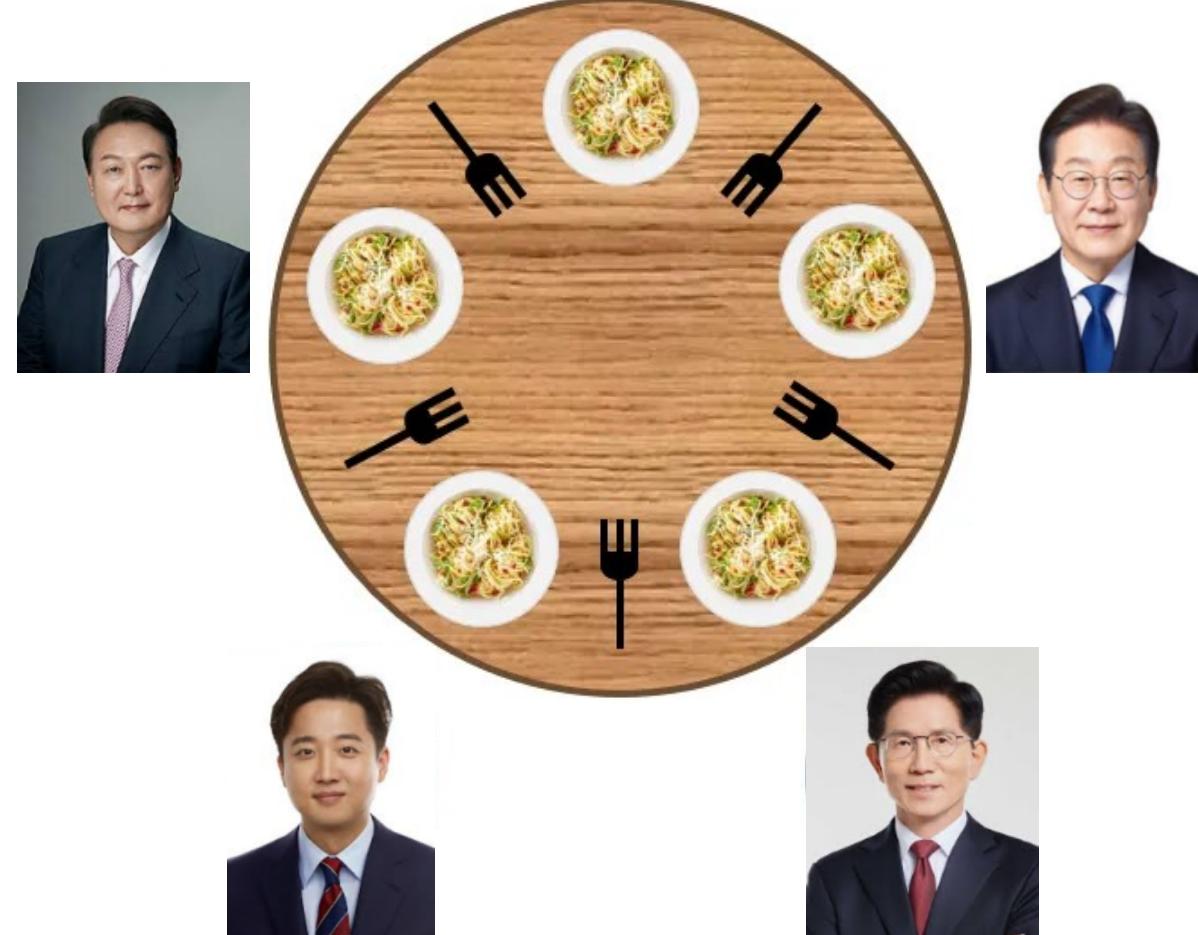
모든 자원을 공유 가능하게 만든다.

이론적으로 가능, 현실적으로 모든 자원의 상호 배제를 없애기는 어렵다.

# 교착 상태 예방 : 점유와 대기 제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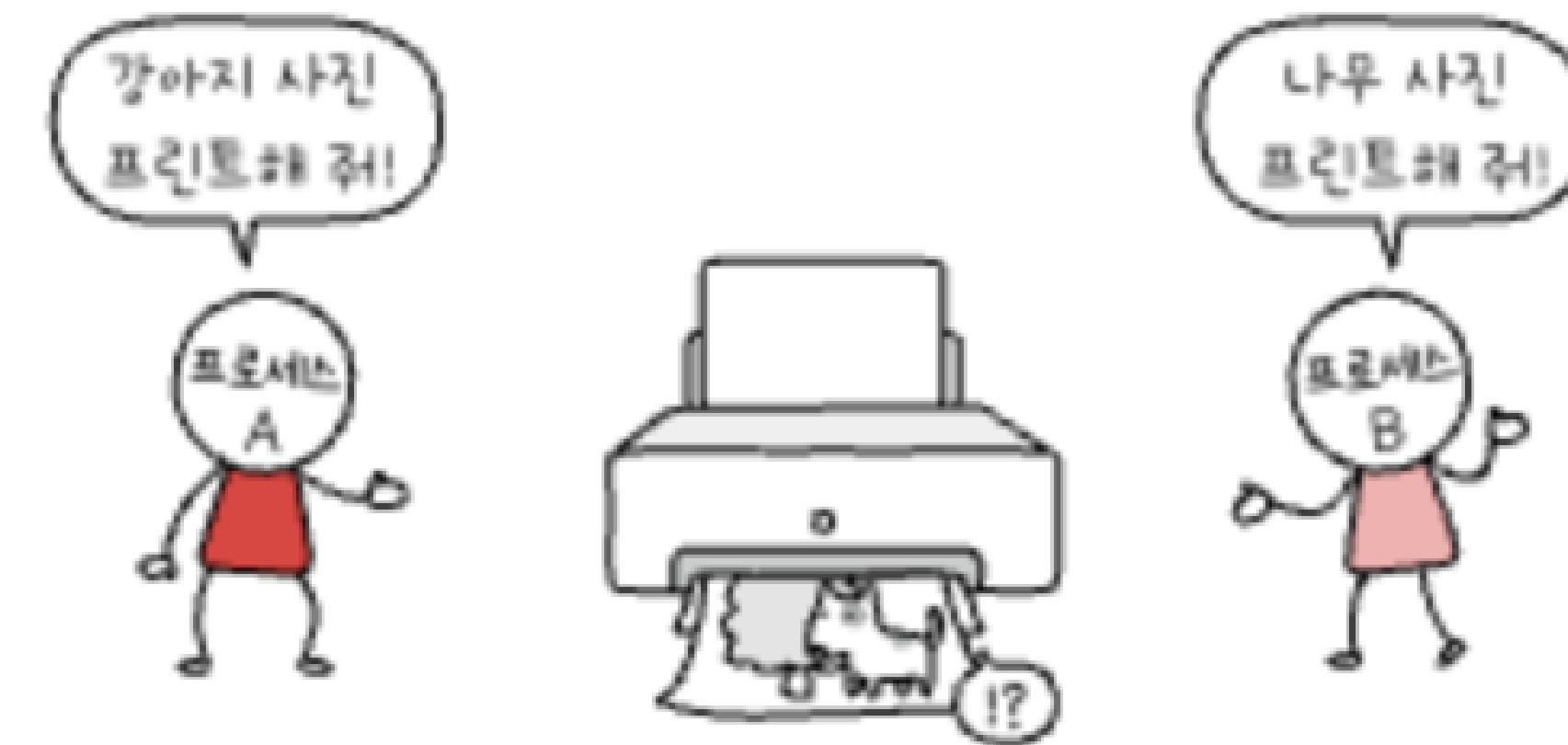


무조건 2개 들거나 아무것도 안들거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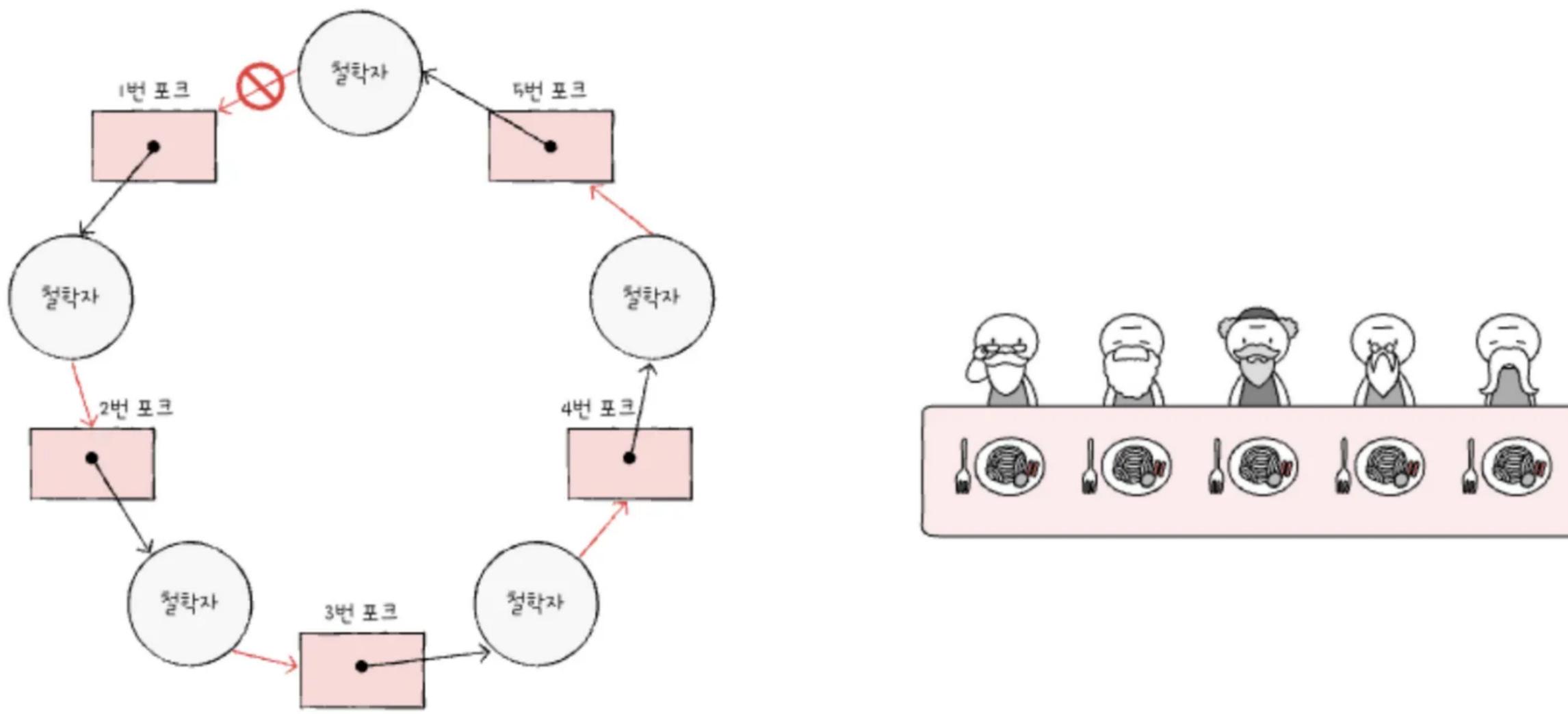
자원의 활용도가 낮아지고,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프로세스는 동시에 자원을 사용할 타이밍 확보가 어렵다.

# 교착 상태 예방 : 비선점 제거



프린트 중 다른 프로세스가 프린터 자원을 빼앗아 사용한다면?  
다른 그림이 한 페이지에 나오게 된다.  
그래서 비선점 제거는 범용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다.

# 교착 상태 예방 : 원형 대기 조건 제거



컴퓨터 시스템 내의 수많은 자원에 번호를 붙이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.  
자원에 어떤 번호를 붙이는지에 따라 특정 자원의 활용률이 떨어질 수 있다.

# 교착 상태 회피

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만 조심히 자원을 할당하는 방식.

교착 상태를 한정된 자원의 무분별한 할당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간주.

# 교착 상태 회피

**안전 상태**: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고 모든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자원을 할당받고 종료되는 상태

**불안전 상태**: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

**안전 순서열**: 교착 상태 없이 안전하게 프로세스들에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순서

# 교착 상태 회피

프로세스	요구량	현재 사용량
P1	10	5
P2	4	2
P3	9	2

- 할당 가능 자원: 12
- 할당한 자원: 9
- 남은 자원: 3

P2 -> P1 -> P3 라는 안전 순서열 존재

# 교착 상태 회피

프로세스 P1, P2, P3가 모두 최대로 자원을 요구한 최악의 상황

프로세스	최대 요구량	현재 사용량
P1	10	5
P2	4	2 + 2
P3	9	2

프로세스	최대 요구량	현재 사용량
P1	10	5
P2	4	2 + 2
P3	9	2

종료, 자원 반환

- 할당 가능 자원: 12
- 할당한 자원:  $9 + 2 = 11$
- 남은 자원:  $3 - 2 = 1$

- 할당 가능 자원: 12
- 할당한 자원:  $11 - 4 = 7$
- 남은 자원:  $1 + 4 = 5$

# 교착 상태 회피

프로세스 P1, P2, P3가 모두 최대로 자원을 요구한 최악의 상황

프로세스	최대 요구량	현재 사용량
P1	10	5 + 5
P2	4	2 + 2
P3	9	2

프로세스	최대 요구량	현재 사용량
P1	10	5 + 5
P2	4	2 + 2
P3	9	2

종료, 자원 반환

- 할당 가능 자원: 12
- 할당한 자원:  $7 + 5 = 12$
- 남은 자원:  $5 - 5 = 0$

- 할당 가능 자원: 12
- 할당한 자원:  $12 - 10 = 2$
- 남은 자원:  $0 + 10 = 10$

# 교착 상태 회피

운영체제가 P3에 먼저 자원을 하나 내준 상황

프로세스	최대 요구량	현재 사용량
P1	10	5
P2	4	2
P3	9	3

프로세스	최대 요구량	현재 사용량
P1	10	5
P2	4	2 + 2
P3	9	3

- 할당 가능 자원: 12
- 할당한 자원: 10
- 남은 자원: 2

- 할당 가능 자원: 12
- 할당한 자원:  $10 + 2 = 12 \rightarrow 12 - 4 = 8$
- 남은 자원:  $2 - 2 = 0 \rightarrow 0 + 4 = 4$

교착 상태 발생 위험

# 교착 상태 검출 후 회복

프로세스들이 자원을 요구할 때마다 모두 할당하며,  
교착 상태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한다

# 교착 상태 검출 후 회복 : 선점을 통한 회복

교착 상태 해결까지 한 프로세스씩 자원을 몰아주는 방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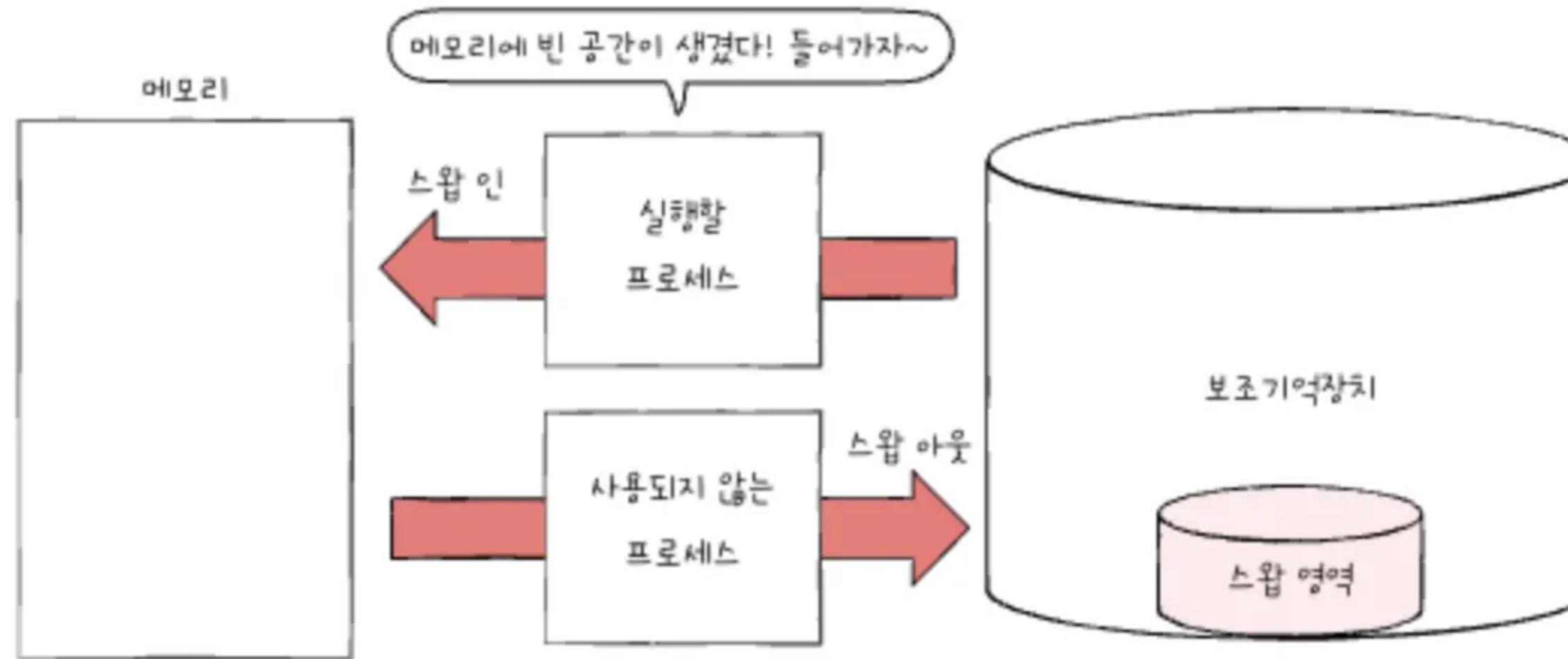
다른 프로세스로부터 자원을 강제로 빼앗고 한 프로세스에 할당.

# 교착 상태 검출 후 회복 : 프로세스 강제 종료를 통한 회복

교착 상태에 놓인 프로세스를 모두 강제 종료할 수도,  
교착 상태가 없어질 때까지 한 프로세스씩 강제 종료할 수도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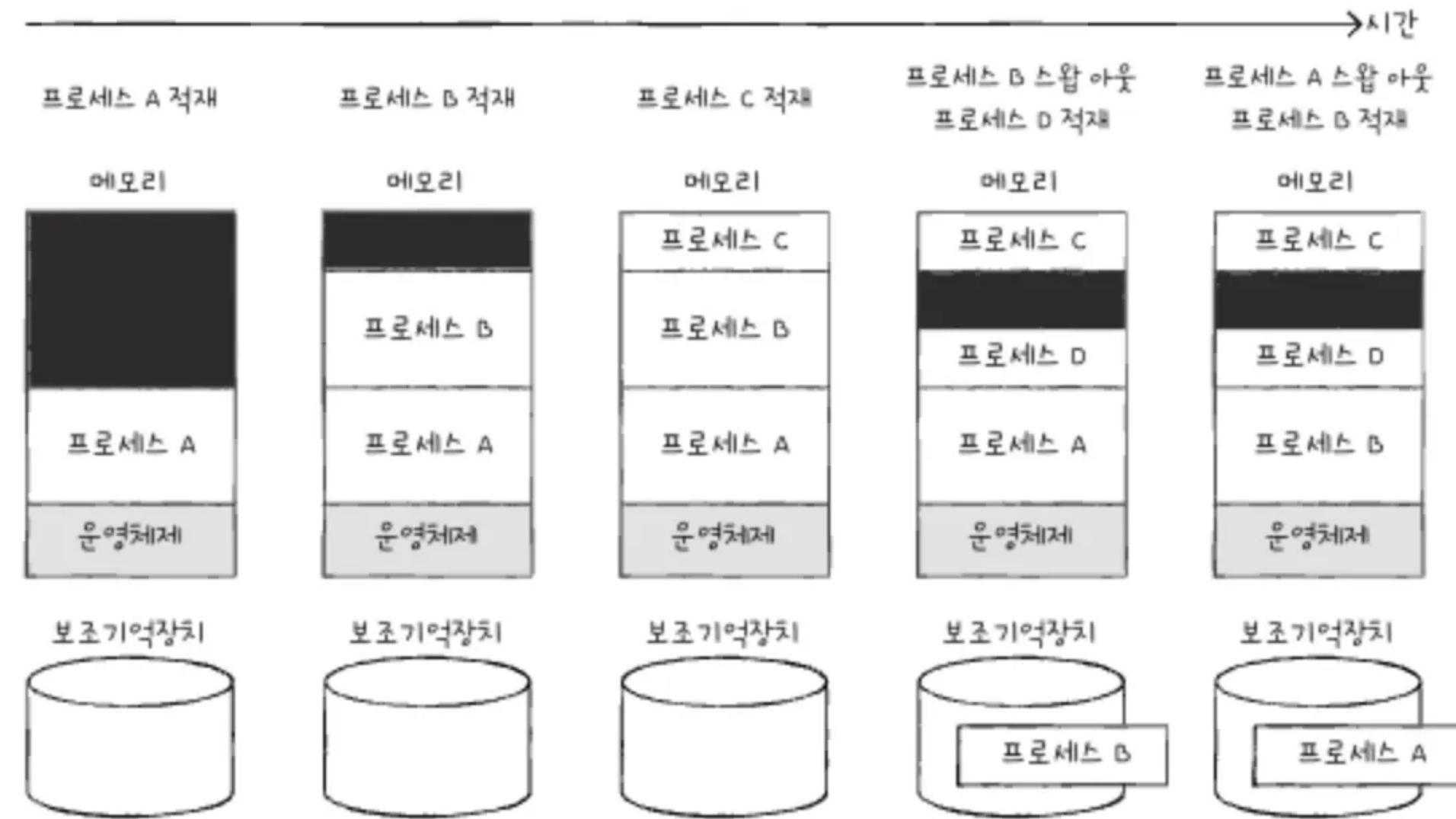
# **14-1. 연속 메모리 할당**

# 스와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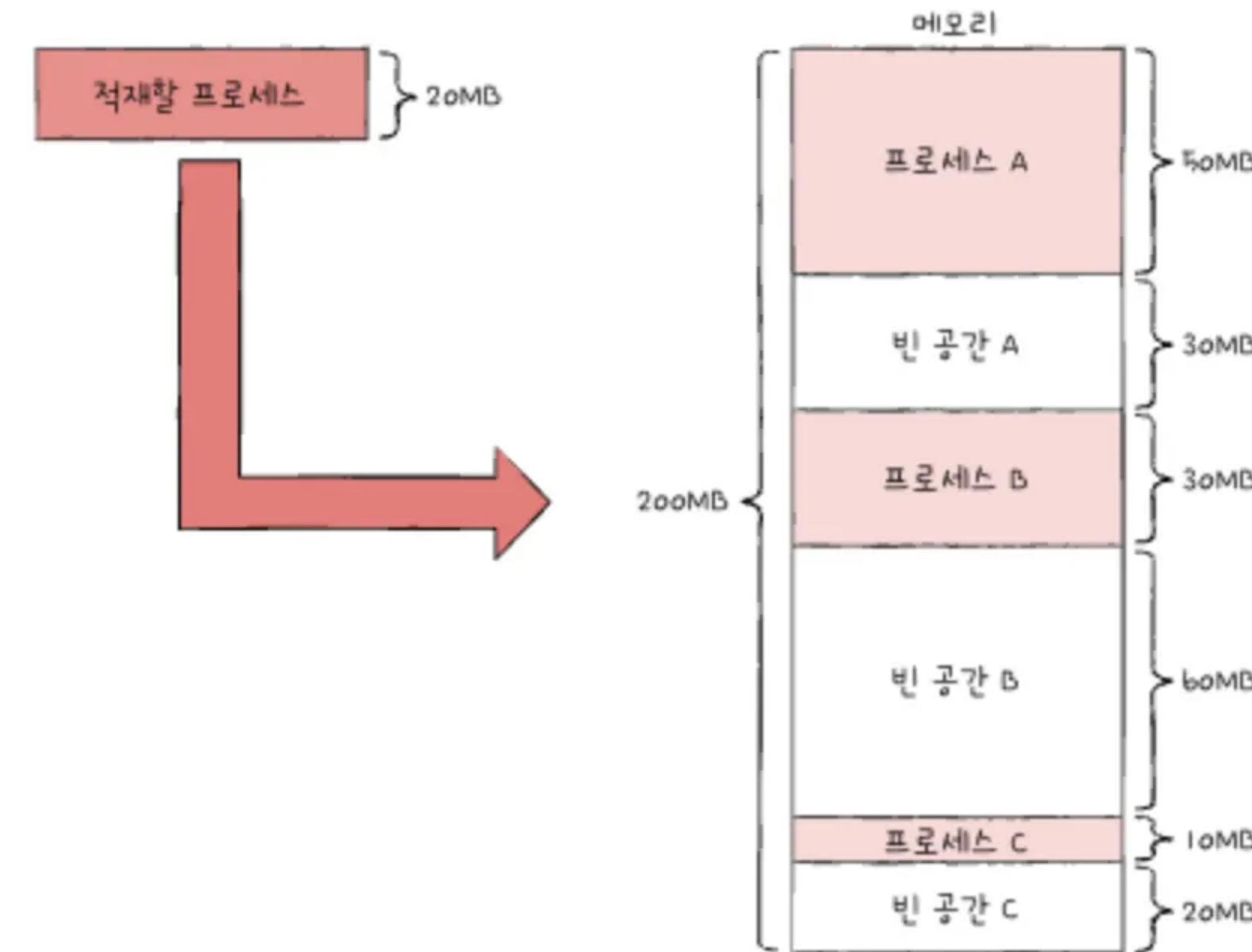
메모리에 현재 실행되지 않는 프로세스들을 보조기억장치로,  
실행될 프로세스들을 메모리로 옮기는 방법

# 스와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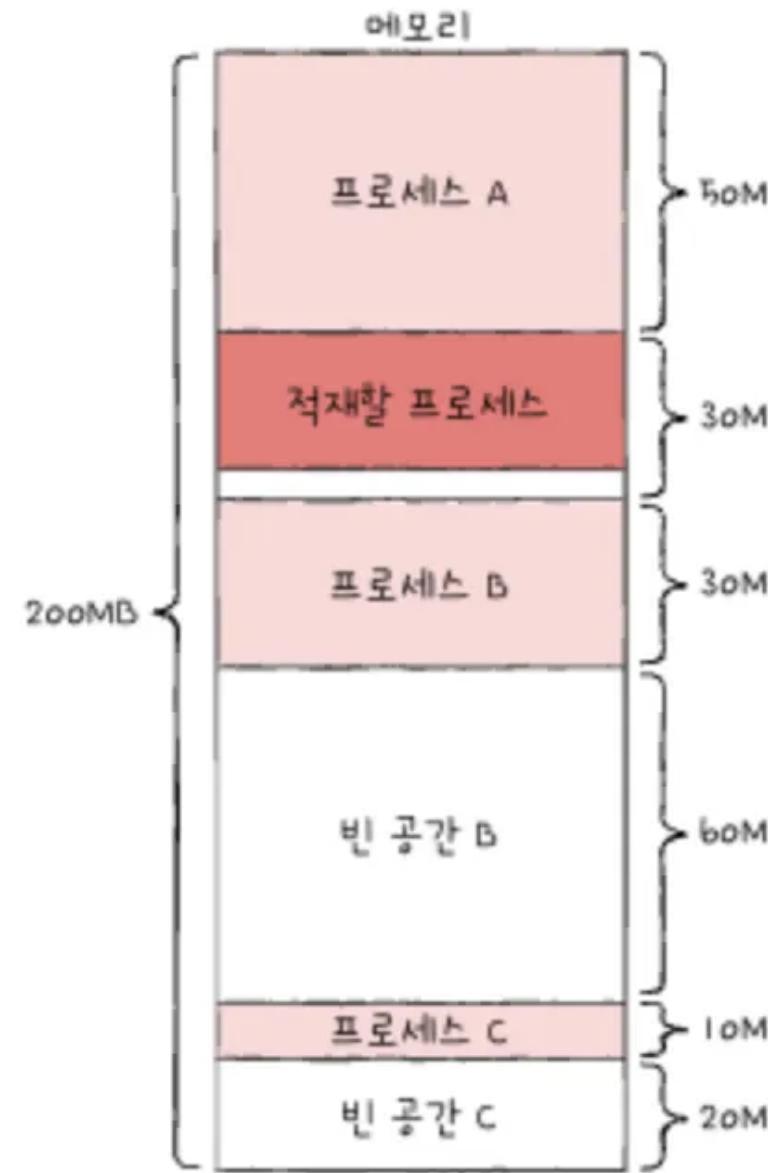
스와핑을 통해 네 개의 프로세스를 모두 실행할 수 있음.

# 메모리 할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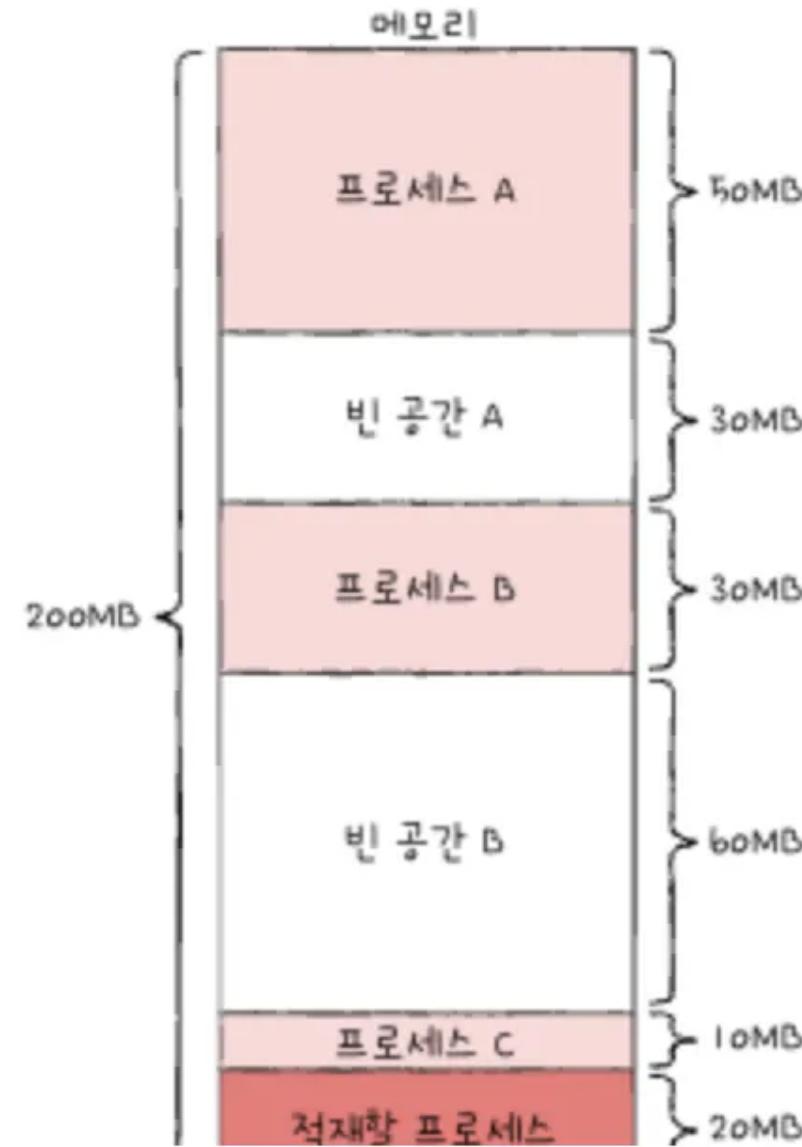
프로세스는 메모리 내 빈 공간 중  
최초, 최적, 최악 적합 중 하나의 방식으로 할당된다.

# 메모리 할당: 최초 적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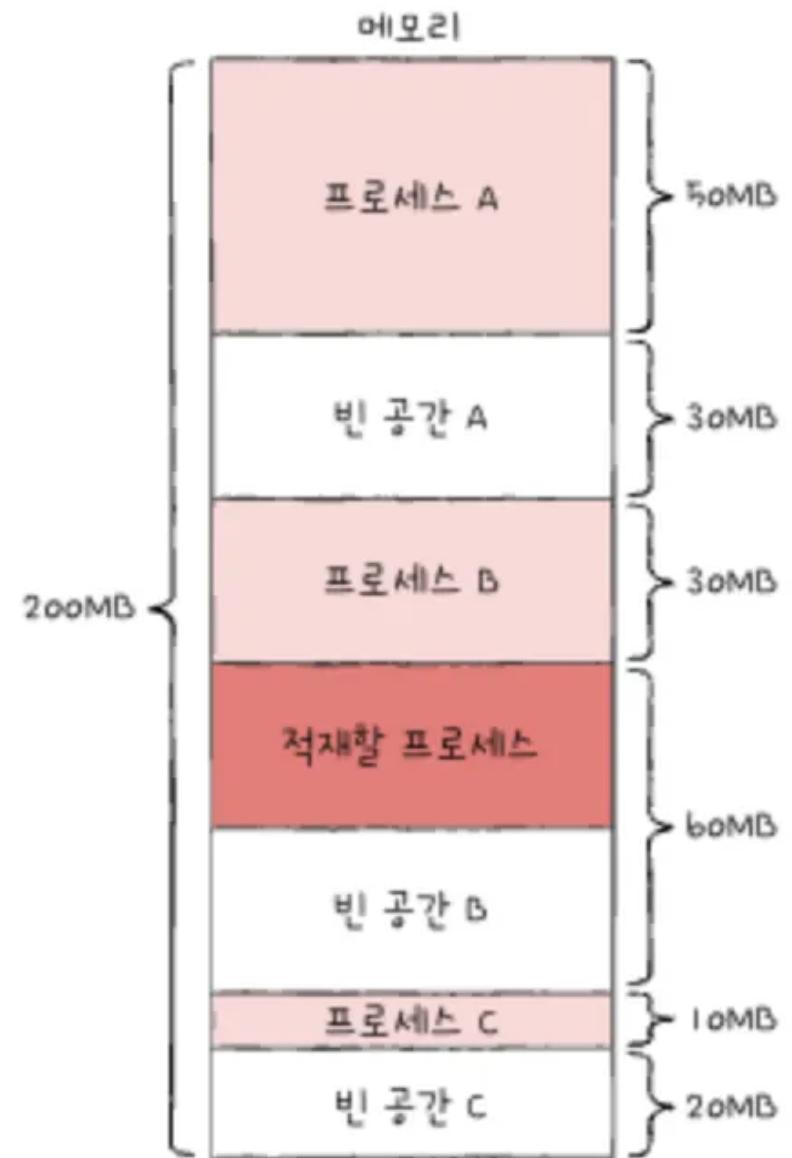
빈 공간을 **순서대로 검색**하다 적재 가능 공간 발견 시 바로 프로세스 배치  
검색 최소화, 빠른 할당

# 메모리 할당: 최적 적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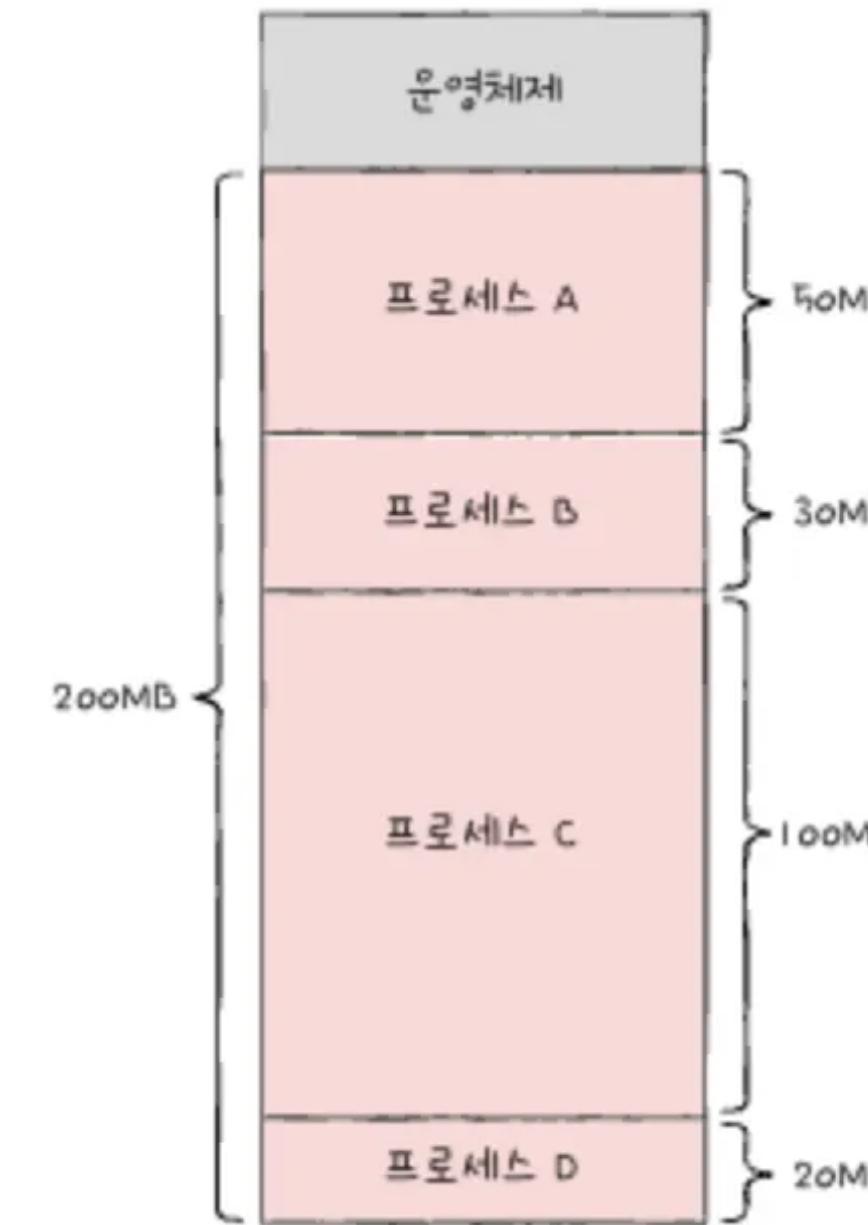
빈 공간 **모두 검색** 후 프로세스가 적재될 수 있는  
가장 작은 공간에 프로세스 배치

# 메모리 할당: 최악 적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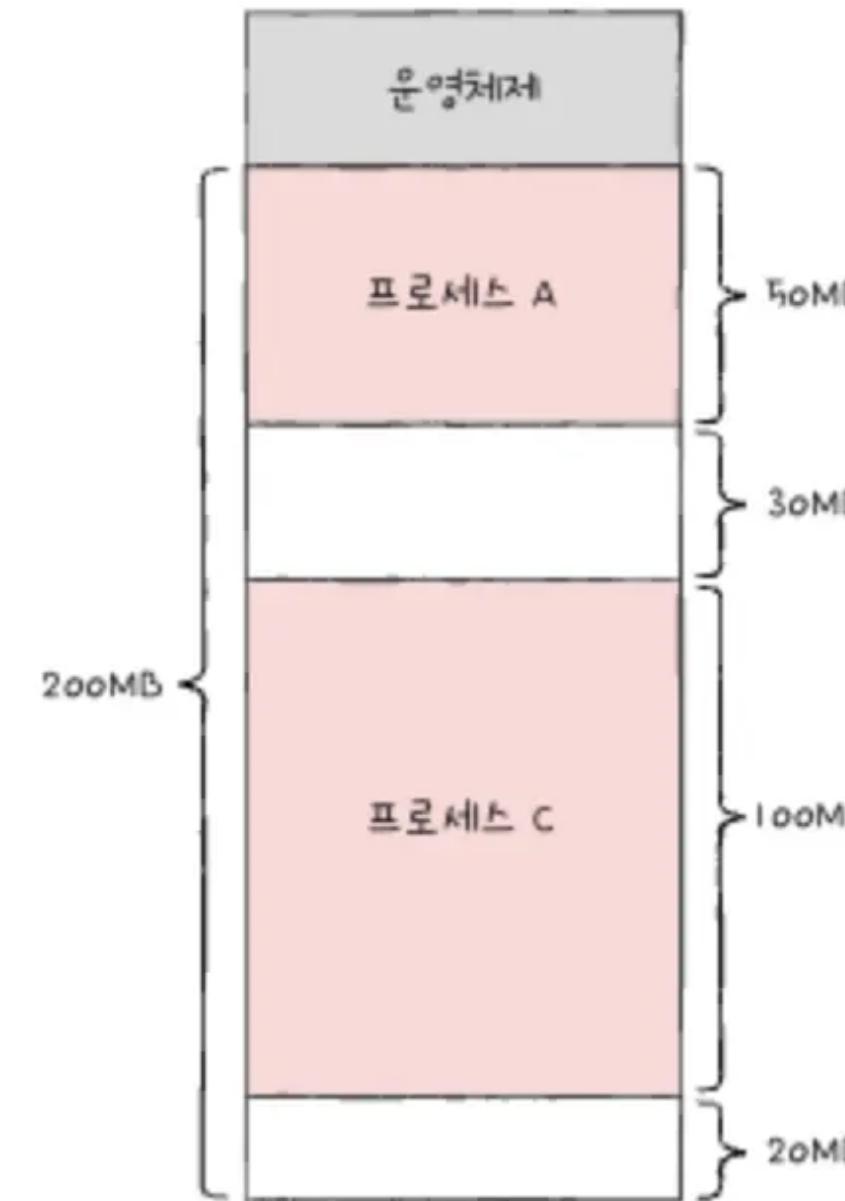
빈 공간 **모두 검색** 후 프로세스가  
적재될 수 있는 가장 큰 공간에 배치

# 외부 단편화



프로세스 A, B, C, D를 다음과 같이 딱 맞게 배치했다.

# 외부 단편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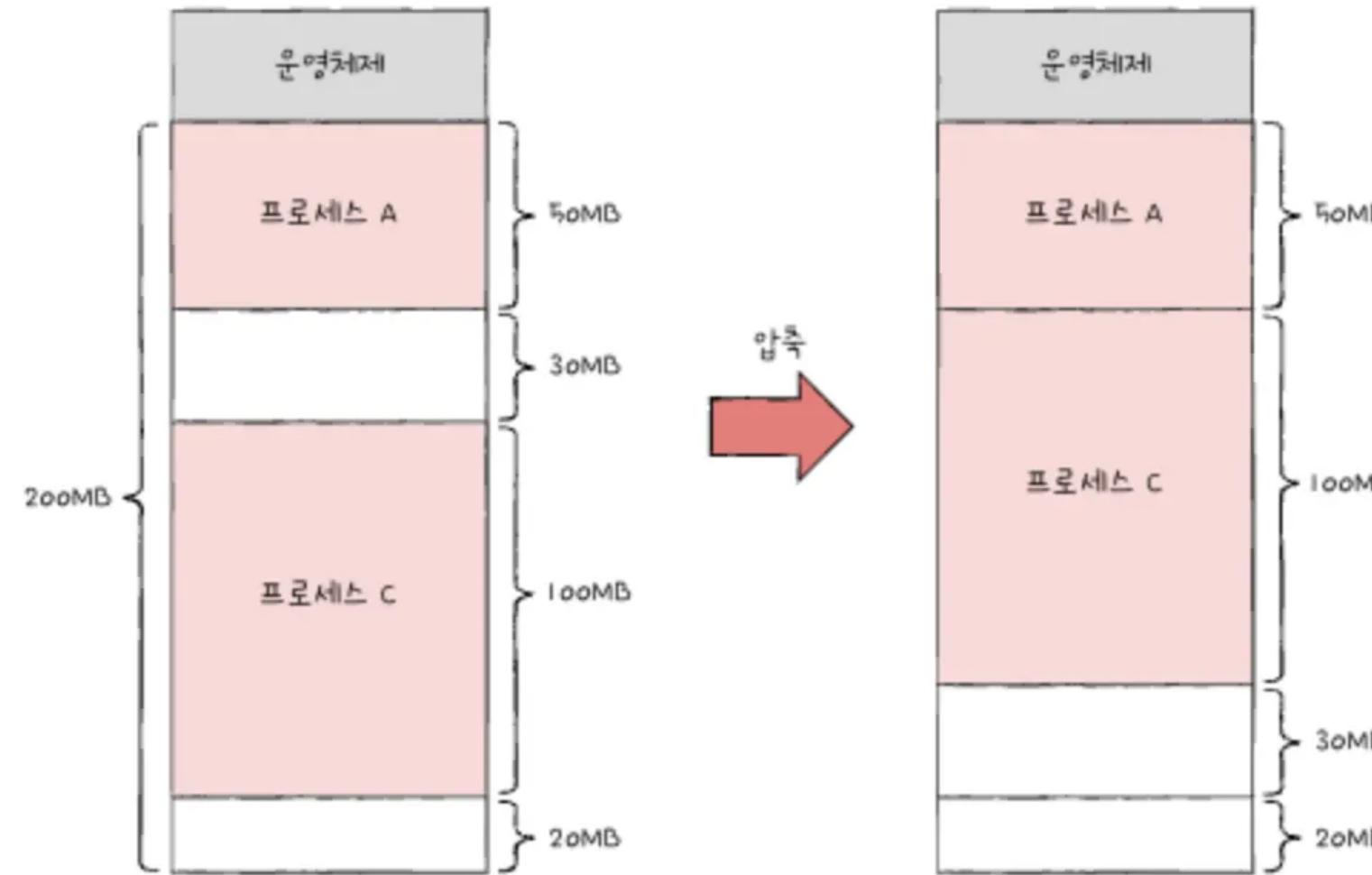


B, D 실행이 끝나면, 빈 공간이 생긴다.

빈 공간 총합은 50MB지만 50MB 크기의 프로세스 적재는 불가능.

이러한 현상을 외부 단편화라고 한다.

# 외부 단편화 해결 방법: 압축



빈 공간들을 하나로 모으는 방식

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스템은 하던 일을 중지해야 한다.

또 메모리 내용을 옮기는 작업은 많은 오버헤드를 야기한다.

**또 다른 해결 방법: 페이징**